

평 화 선 언

‘그날’로부터 68년째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한 발의 원자폭탄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가족이 있습니다. ‘무사히 남자아이를 출산하여 가족 모두가 축하하려던 바로 그때, 원자폭탄이 작렬하여 무정하게도 기쁨과 희망이 새 ‘생명’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가족을 빼앗기고 간신히 살아남은 원폭 고아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독, 병마와 싸우며 평생 가족을 갖지 못하고 고독한 노인이 된 피폭자. ‘살아남길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장년에 걸친 도탄의 고통을 되돌아 보는 그에게 깊은 상처는 지금도 나올 줄 모릅니다.

생후 8개월로 피폭하여 차별과 편견에 고통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결혼은 했지만 1개월 후 피폭자건강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친절했던 시어머니에게 ‘피폭했네, 피폭한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하고 이혼당했습니다. 방사선의 공포는 때때로 인간의 추악함과 잔인함을 이끌어 내어, 이유없는 소문에 의해 결혼이나 취직, 출산이라는 인생의 고비마다 많은 피폭자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죄 없는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꾸었으며 평생에 걸쳐 심신을 괴롭히는 원폭은 더할 나위 없는 비인도 병기이며 ‘절대악’입니다. 원폭의 지옥을 아는 피폭자는 그 ‘절대악’과 싸워 왔습니다.

괴롭고 냉혹한 환경 속에서 피폭자는 울분과 증오, 슬픔 등 갖가지 감정으로 갈등을 거듭해 왔습니다. 후유증에 고통받으며 ‘건강해지고 싶다. 다른 사람 같은 건강을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이 경험한 비참한 체험을 다른 누구에게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폭 당시 14살이었던 남성은 호소합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계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면 전쟁을 피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피폭자의 평균연령이 78세를 넘은 지금도 평화를 호소하며 세계 사람들이 이 마음을 공유하여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어 온 많은 피폭자의 염원에 부응하여 핵병기철폐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히로시마시는 평화시장회의를 구성하는 5,700개 넘는 가맹도시와 함께 UN과 뜻을 같이하는 NGO 등과 연대하여 2020년까지 핵무기철폐를 위하여 핵무기금지조약의 조기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의 위정자 여러분, 언제까지 의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위협으로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피폭자의 염원을 접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인류의 미래를 향해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안전보장체제로의 전환을 결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로시마는 일본국 헌법이 지향하는 숭고한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며 동시에 인류가 나아갈 길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생각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비핵병기지대 창설을 향한 관계국의 노력이 한층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핵병기의 비인도성에 입각하여 핵병기철폐를 주창하는 국가가 착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핵병기의 추가 삭감교섭을 러시아에 제안하고 핵 군축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교섭은 양호한 경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핵병기철폐에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일본정부가 핵병기철폐를 추구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군축, 불확산 전략’ 외무장관회담에서 NPT 체제의 견지, 강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내외 피폭자의 고통화는 확실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피폭자나 검은 비 체험자의 실태에 따른 지원책의 충실화, ‘검은 비 강우지역’의 확대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동일본에서는 대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고통받으면서 고향의 재생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구의 고난을 잘 알고 있는 히로시마시민은 피해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있는 에너지정책을 조기에 구축하여 실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이 여기에서 68년간의 선인의 노력을 깊이 생각하고 ‘절대악’인 핵병기 철폐와 평화로운 세계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며 원폭희생자의 영령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13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